

## 『四象方藥合編』의 사상체질진단법에 대한 고찰

유준상<sup>1,2,\*</sup> · 오진아<sup>3</sup><sup>1</sup>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sup>2</sup>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 <sup>3</sup>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 Abstract

##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Method in the 『Sasang-Bangyakhappyeon』

Jun-Sang Yu<sup>1,2,\*</sup> · Jin-Ah Oh<sup>3</sup><sup>1</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sup>2</sup>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sup>3</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 Objectives

We examined the clinical applicability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method described in 『Sasang-Bangyakhappyeon』.

## Method

We translated and analyzed the sections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in 『Sasang-Bangyakhappyeon』 into Korean and compared the content with 6 major books on Sasang medicine.

## Results and Conclusion

The diagnosis method in 『Sasang-Bangyakhappyeon』 includes seven criteria (inspection(望診), inquiry(問診), listening and smelling examination(聞診), palpation(切診), body diagnosis(體診), herbal diagnosis(藥診), and acupunctural diagnosis(鍼診)) for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principles for constitutional diagnosis. Following a comparison of the seven differentiation criteria with 6 major book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y were applied similar criteria, like each constitution has its original symptomology such as helathy Soyangin has easy defecation and healthy Taeumin has brisk perspiration. Only herbal diagnosis(藥診) and acupuncture diagnosis(鍼診) were confirmed as unique diagnostic methods not found in other books. It is thought that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herbal diagnosis(藥診) and acupunctural diagnosis(鍼診) suggested in 『Sasang-Bangyakhappyeon』 are suitable methods for clinical use alongside existing diagnostic methods.

*Key Words* : Sasang Bangyakhappye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ceived 11, March 2025 Revised 12, March 2025 Accepted 21, March 2025

Corresponding author: Jun-Sang Yu

80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26338 Republic of Korea

TEL:+82-33-741-9202, FAX:+82-33-741-9141, E-mail: hiruok@sangji.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 I. 緒論

1894년 동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출판 이래로 다양한 사상의학 및 사상체질에 대한 서적이 출판되었다. 임상에서는 실용서 위주로 발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東醫四象診療醫典』이다. 『동의사상진료의전』은 1941년 이태호에 의해서 편자가 되었으며, 사상체질의 진단법과 ‘他藥受害例’라는 타 체질이 복용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실었으며, 나머지 내용은 『東醫四象新編』을 정리해서 실었다. 1970년대에는 다양한 처방서들이 간행되었고 행림서원의 간행물로는 1971년 天德山人의 『東武遺稿四象金匱秘方』, 1972년 이태호의 『東醫四象診療秘典』, 1973년 權英植의 『四象方藥合編』이 있고, 1975년 朴寅商의 『東醫四象要訣』은 癸丑文化社에서 출간되었다.<sup>1</sup>

이 중 1973년 權英植에 의해서 행림서원에서 출판된 『四象方藥合編』은 출간 당시 필사본의 형태로 간행이 되었으며 이후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바가 없다. 저자인 권영식은 1969년 학술 단체인 화요한의학회 연구회의 창립 구성원으로 연구회원들의 논문을 수록한 『화요한방』을 통해 사상체질 감별법과 경험방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해당 학회는 현 체형사상학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sup>2</sup> 권영식은 『醫林』에도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사상체질 감별법에 대해 논한 1973년 『醫林』 97호의 ‘사상감별법에 대하여’ 중 망진에 대한 내용은 현 사상의학 교과서에 도표화하여 수록되어 있다.<sup>1</sup>

해방 이후 근현대시기 사상의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며 체질 진단과 감별의 전문가로서 후대 한의사에게 인정받고 있는 권영식의 저서라는 점에서 『四象方藥合編』은 사상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주요 임상서임에도 불구하고 활자본으로 간행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이 또한 현재 절판된 상황으로 현재 한의학계 내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타 사상의학 임상 서적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약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사본의 사본을 확보하여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던 중 ‘診察方法’에서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였고, 체질진단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사상의학 관련 서적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1. 『사상방약합편』은 1973년 행림서원에서 발행한 필사본의 복사본을 구하여 사상체질진단과 관련한 주요 부분을 한글로 번역 정리하였다.
2. 기존의 사상의학 관련 서적 중에서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동의수세보원 갑오본』, 『동의사상신편』, 『동의사상진료의전』 및 『성리임상론』을 중심으로 해당 서적에 수록된 사상체질진단법과 『사상방약합편』에 수록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해 선정된 서적에 관련된 항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상의학 교과서와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III. 本論

### 1. 『사상방약합편』에 수록된 사상체질진단법

『사상방약합편』의 내용 중 체질 진단에 관한 부분은 ‘診察方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필사본의 37쪽부터 42쪽에 수록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望診, 問診, 聞診, 切診, 體診, 藥診, 針診의 총 7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한 체질진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望診

머리와 발, 흉, 견, 요협, 방광의 크기를 비교하여 사상인의 體라고 설명하였으며, 콧구멍, 안광, 안구, 지각(아랫턱), 입과 턱, 입술과 턱, 눈코입의 형태로 사상인 중 어떤 체질에 많다고 설명하였다. 행동거지

로 흔들거리는 몸짓, 단중한 모습, 움직이지 않는 모습,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체질을 판단하였다. 말하는 투로 구별하고, 기혈의有余와 부족, 용모를 이용해 어떠한 체질에 많다고 설명하였다(Table 1, 2).

Table 1.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Inspection(望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頭大足小者	太陽人之體也	머리가 크고 발이 작은 사람은 태양인이다.
頭足小與 腰脇大者	太陰人之體也	머리와 발이 작고 허리와 옆구리가 큰 사람은 태음인이다.
胸強足輕者	少陽人之體也	기슴이 강하고 발이 가벼운 사람은 소양인이다.
肩小膀胱大者	少陰人之體也	어깨가 작고 방광이 큰 사람은 소음인이다.
鼻腔露潤者	多於太陰人	콧구멍이 드러나고 어그리진 사람은 태음인이다.
眼光炯明者	多於少陽人	눈빛이 빛나고 밝은 사람은 소양인이다.
眼珠如漆者	多於太陰人	눈알이 옷칠을 한 것처럼 검은 사람은 태음인이다.
地閣豐厚者	多於太陰人	지각(아래턱끝부분)이 살져 넉넉한 사람은 태음인이다.
口大頤薄者	多於少陰人	입이 크고 턱이 얇은 사람은 소음인이다.
脣薄頤尖者	多於少陽人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한 사람은 소양인이다.
眼鼻口有剽銳者	多於少陽人	눈, 코, 입이 날래고 예리한 사람은 소양인이다.
眼球突兀者	多於少陽人	눈알이 우뚝하게 돌은 사람은 소양인이다.
如搖如輕者	多於少陽人	흔들 듯이 하고 가볍게 보이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如依如重者	多於少陰人	의지하듯 하고 단중한 듯 보이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不動而靜者	多於太陰人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鄭聲不欲言者	多於太陰人	약하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輕言者	多於少陽人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多言者	多於少陽人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氣如有餘者	多於少陽人	기운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氣如不足者	多於少陰人	기운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氣血如餘者	多於太陰人	기혈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威猛如餘者	多於太陽人	위엄과 용맹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태양인이다.
容貌多情者	多於少陰人	용모가 정이 많은 사람은 소음인이다.
容貌剽銳者	多於少陽人	용모가 날쌔고 예리한 사람은 소양인이다.
容貌厚重者	多於太陰人	용모가 후덕하고 진중한 사람은 태음인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spection(望診) for Each Sasang Constitution in 『Sasang-Bangyakhapyeon』

체질 구분	해당 원문
태양인	頭大足小者, 威猛如餘者
소양인	胸強足輕者, 眼光炯明者, 脣薄頤尖者, 眼鼻口有剽銳者, 眼球突兀者, 如搖如輕者, 輕言者, 多言者, 氣如有餘者, 容貌剽銳者
태음인	頭足小與 腰脇大者, 鼻腔露潤者, 眼珠如漆者, 地閣豐厚者, 不動而靜者, 鄭聲不欲言者, 氣血如餘者, 容貌厚重者
소음인	肩小膀胱大者, 口大頤薄者, 如依如重者, 氣如不足者, 容貌多情者

2) 問診

태양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체질을 땀, 대변에 대한 반응, 좋아하는 음식이나 맛, 춘하추동 중 견디거나 견디기 힘든 계절, 과일이나 채소 중 좋아하는 것, 통증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분하였다(Table 3).

3) 聞診

태양인을 제외한 세 사상인의 목소리 상태로 체질을 정해서 설명하였다(Table 4).

4) 切診

태양인을 제외한 세 사상인의 맥박수를 기준으로 삼아 체질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Table 5).

5) 體診

체간 부위를 乳上, 乳下, 臍上, 臍下라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에 각각의 둘레 길이를 cm로 기재하고, 길이에 따른 형태의 차이와 장부 대소 및 체질을 구분하였다(Table 6).

Table 3.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Inquiry(問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汗流而不疲者	땀이 흐르지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소양인이다.
下多而大疲者	대변을 여러번 보고 크게 피곤한 사람은 소양인이다.
下多亡陰者	대변을 여러번 보고 망음이 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嗜生嗜苦味者	날 것, 쓴 맛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耐夏嫌冬者	여름을 견디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嗜眞瓜者	참외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痛有往來	통증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汗多而爽快者	땀이 많이 나고 상쾌한 사람은 태음인이다.
下多而無關者	대변을 여러번 보지만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1日數三行亦同	1일에 3번을 대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耐冬嫌夏者	겨울을 견디고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嗜梨實者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嗜水瓜者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痛有稽留者	통증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汗少而疲者	땀이 적고 피곤한 사람은 소음인이다.
下而不疲者	대변을 보지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소음인이다.
汗多亡陽者	땀을 많이 내고 망양이 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嗜甘嗜熟味者	단 것, 익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嫌夏冬耐春秋者	여름과 겨울을 싫어하고 봄, 가을을 견디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嗜沙果者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嗜桃實者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不耐痛者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Table 4.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Listening and Smelling Examination(聞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音聲細亮者	목소리가 가늘고 밝은 사람은 소양인이다.
音聲半清半濁者	목소리가 반쯤 맑고 반쯤 탁한 사람은 소음인이다.
音聲濁大者	목소리가 탁하고 큰 사람은 태음인이다.

Table 5.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Palpation(切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脈搏一分間 六十內外者	太陰人	맥박이 1분간 60내외로 뛰는 자는 태음인이다.	
脈搏一分間 七十內外者	少陰人	맥박이 1분간 70내외로 뛰는 자는 소음인이다.	
脈搏一分間 八十內外者	少陽人	맥박이 1분간 80내외로 뛰는 자는 소양인이다.	

Table 6.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Body Diagnosis(體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yeon』

체질 구분	둘레 길이	장부대소	형태	
태음인	乳上	83cm	肝大肺小人之體 간대폐소	배탕이형 항아리형
	乳下	85cm		
	臍上	75cm		
	臍下	73cm		
소양인	乳上	82cm	脾大腎小人之體 비대신소	나무못형 못형
	乳下	81cm		
	臍上	80cm		
	臍下	78cm		
소음인	乳上	82cm	脾小腎大人之體 신대비소	長鼓型 장고(긴북)형
	乳下	80cm		
	臍上	70cm		
	臍下	80cm		
태양인	乳上	82cm	肺大肝小人之體 폐대간소	不均型 불균형
	乳下	70cm		
	臍上	70cm		
	臍下	61cm		

6) 藥診

태양인을 제외한 세 체질에 체질별 약물로 정향가루, 박하뇌, 용뇌를 각각 설정하고 각 약물을 1푼 복용한 후에 조금 증상이 편안해지면 해당 체질로 진단하였다(Table 7).

7) 針診

각 체질별로 좌측과 우측에 해당 혈위에 침을 놓아서 병세가 조금 편안해지는 경우 해당 체질로 진단하였고, 침법은 사암침법을 적용하였다. 태양인에서는 좌측에 大腸勝格, 우측에 肝正格을, 소양인에게는 좌측에 胃勝格, 우측에 腎正格을, 태음인에게는 좌측에 肝勝格, 우측에 大腸正格을, 소음인에게는 좌측에 腎勝格, 胃正格을 시침하도록 하였다. 보사법은 영수보사법으로 표시를 하였다(Table 8).

Table 7.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Herbal Diagnosis(藥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丁香末1分	吞下而少安者	少陰人	정향가루 1푼을 삼켜서 약간 편안해지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薄荷腦1分	吞下而少安者	少陽人	박하뇌 1푼을 삼켜서 약간 편안해지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龍腦1分	吞下而少安者	太陰人	용뇌 1푼을 삼켜서 약간 편안해지는 사람은 태음인이다.	

Table 8.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Acupunctural Diagnosis(針診)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체질 구분	좌/우	補	瀉	의미
태양인	左側	양곡(SI5, 陽谷) 隨+ 양계(LI5, 陽谷) +	이간(LI2, 二間) 迎- 통곡(BL66, 通谷) -	瀉大腸
	右側	음곡(KI10, 陰谷) 隨+ 곡천(LR8, 曲泉) +	경거(LU8, 經渠) 迎- 중봉(LR4, 中封) -	補肝
소양인	左側	임읍(GB41, 臨泣) 隨+ 함곡(ST43, 陷谷) +	상양(LI1, 商陽) 迎- 어태(ST45, 厲兌) -	瀉胃
	右側	경거(LU8, 經渠) 부류(KI7, 復溜) +	태백(SP3, 太白) 迎- 태계(KI3, 太谿) -	補腎
태음인	左側	경거(LU8, 經渠) 隨+ 중봉(LR4, 中封) +	소부(HT8, 少府) 迎- 행간(LR2, 行間) -	瀉肝
	右側	족삼리(ST36, 足三里) 隨+ 곡지(LI11, 曲池) +	양곡(SI5, 陽谷) 隨- 양계(LI5, 陽谷) -	補大腸
소음인	左側	태백(SP3, 太白) 迎- 태계(KI3, 太谿) -	대돈(LR1, 大敦) 迎- 용천(KI1, 湧泉) -	瀉腎
	右側	양곡(SI5, 陽谷) 隨+ 해계(ST41, 解谿) +	임읍(GB41, 臨泣) 隨- 함곡(ST43, 陷谷) -	補胃

### 8) 체질진단의 원칙

체질진단의 원칙으로서 먼저 망진을 통해서 사상인을 진단하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問診, 聞診, 切診, 體診까지 진행하여 사상인을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진, 침진을 시행하여 의심이 없으면 연후에 약을 써서 치료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Tabl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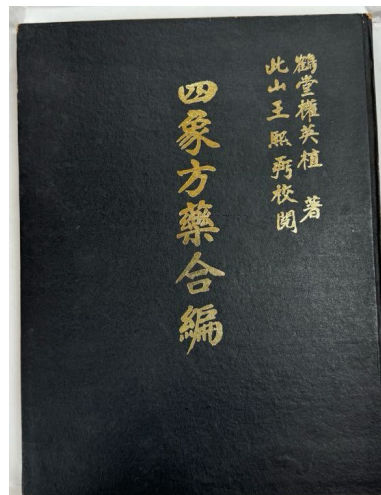


Figure 1. 『Sasang-bangyakhappyeon』 (published in 1973)

Table 9.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Constitutional Diagnosis Principles in 『Sasang-Bangyakhappyeon』

『사상방약합편』 원문	한글 번역
先望診而定四象人	먼저 망진으로 사상인을 정한다.
若未詳則 順次問聞切體而定四象人	만약 자세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문진, 들어보는 문진, 절진, 신체 측정 진단을 통해 사상인을 정한다.
又若未詳則 又藥診針診而 無疑然後 施藥治病可也.	또 만약 자세하지 않으면 약진, 침진을 시행하여 의심이 없으면 연후에 약을 쓰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Table 10.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Contents in Major Sasang Medicine Books

서명	항목	주요 내용
동의수세보원 신축본	제17장 사상인변증론	사상인의 주요 특성 비교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병변 제5통	사상인의 소증 특성 비교
동의수세보원 갑오본	제17장 사상인 변증론	사상인의 주요 특성 비교
동의사상신편	내편 사상변론	사상인 분류를 위한 조문 취합
동의사상진료의전	제2편 사상각론 -사상인의 유형감별	외부상태, 건강상태, 병적상태, 심상증, 금기증, 藥餌反應
성리임상론	제1편 총론 제3장 체질통찰법	사상인의 주요 특성 비교

## 2. 타서적과 『사상방약합편』의 비교

『사상방약합편』의 사상체질 진단의 내용의 기준 서적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학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대표 사상의학 기본서인 동무의 『동의수세보원』<sup>1</sup>,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sup>3</sup>, 『동의수세보원 갑오본』<sup>4</sup>, 그리고 주요 처방서인 원지상의 『동의사상신편』<sup>5</sup>, 이태호의 『동의사상진료의전』<sup>6</sup>, 김주의 『성리임상론』<sup>7</sup>에서 사상체질 진단에 대하여 단일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세부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Table 10).

### 1) 望診

『사상방약합편』의 망진에 기술된 내용은 1973년 의림 97호의 게재된 ‘망진’의 내용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사상방약합편』의 ‘頭大足小者 太陽人之體也, 頭足小與 腰脇大者 太陰人之體也, 胸強足輕者 少陽人之體也 肩小膀胱大者 少陰人之體也.’는 내용은 의림 97호에는 ‘頭大足小者는 태양인의 체형이고, 頭足俱小, 腰脇厚大者는 태음인의 체형이고, 胸強足輕者는 소양인의 체형이고, 肩部狹小, 膀胱大者는 소음인의 체형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동의수세보원』 신축본과 갑오구본에서 태양인 여자는 체형이 건강하고 실하나 간이 적고 허부가 좁아서 자궁이 부족하고<sup>1)</sup>, 소양인의 체형은 上盛下虛하

며 사상인 중에서 가장 감별하기 쉽다 하였고<sup>2)</sup>, 태음인은 기육이 견실하나 소음인은 기육이 부연한 차이가 있다<sup>3)</sup> 하였다. 체형을 통해 진단하는 체형기상은 장부대소에 따라 성장과 연관한 부위가 결정되며, 체간의 부위 내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체질을 감별<sup>4)</sup>하게 되는데, 이는 머리부터 발까지의 전신의 체형 차이에 따라 체질을 감별하는 『사상방약합편』의 망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Table 12). 태양인의 감별과 관련하여 태양인병증론에는 태양인은 면색이 마땅히 흰색이어야 건강하고 흑색이어선 안 되며, 기육은 말라야하며 살지면 안 된다<sup>5)</sup>고 하였다(Table 11).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역시 체형의 비교는 체간부위를 관찰하게 되며<sup>6)</sup>, 건강상태와 질병상태 즉 소증에 따른 감별 방법이 주로 기술되어 있는데, 망진 관련한 항목으로는 면색의 비교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소음인은 얼굴색이 맑은 자주색이면 병이 없고, 탁한 황색이면 병이 있으며, 태음인은 윤기 있는 자주색이면 병이 없고, 소양인은 윤기 있는 푸른색이면 병이 없고, 회고 검은색이면 병이 있으며, 태양인의

1) (17-6) 太陽女 體形 壯實 而肝小腸窄 子宮不足故 不能生產 以六畜玩理 而太陽牝牛馬 體形壯實 而亦不生產者 其理可推

2) (17-8) 少陽人 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3) (17-9) 太陰人 肌肉 堅實 少陰人 肌肉 浮軟

4) (17-2) 太陽人 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5) (15-11) … 面色 宜白不宜黑 肌肉 宜瘦不宜肥 …

6) (10-1) 肺部盛則 肩背暢 脾部盛則 胸膈通 肝部盛則 兩脇張 腎部盛則 腰腸雄

Table 11. Comparison of Somatic Morphology and Physical Comportment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and 『Donguisusebowon』

체질 구분	『사상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태양인	頭大足小者	腦頤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소양인	胸強足輕者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태음인	頭足小與 腰脇大者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頤之起勢 孤弱
소음인	肩小膀胱大者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Table 12. Comparison of Appearance and Manner of Speech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and 『Donguisasangsinpyeon』

체질 구분	『사상방약합편』	『동의사상신편』
태양인	威猛如餘者	形貌則 方圓 有果斷氣
소양인	容貌剽銳者	形貌則 唇頰淺薄 上盛下虛 有剽銳之氣
태음인	容貌厚重者	形貌則 肌肉堅實 修整正大
소음인	容貌多情者	形貌則 肌肉浮軟 簡易小巧

얼굴색이 맑은 흰색이면 병이 없고, 검은색이면 병이 있다) 하였다.

『동의사상신편』의 용모사기에 대한 내용은 『사상방약합편』과 유사하나 표현의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음인의 경우 『사상방약합편』에서는 ‘용모가多情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동의사상신편』에서는 ‘簡易小巧 하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변증론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다(Table 12).

『동의사상신편』의 ‘외부상태’ 항목에서는 체질별 용모, 기육, 체격 특징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용모 특성에 대한 기술은 ‘태양인의 용모가 뚜렷(方圓)하다’와 같이 『동의사상신편』의 표현 방식과 유사하고, 체격에 대하여 ‘태양인의 체격은 목덜미(腦頤=頸椎)가 굵고(起勢盛壯), 허리통(腰圍)이 가늘다(立勢孤弱)’와 같이 체간의 대소 차이를 비교한 『동의수세보원』 등의 기존 서적의 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氣像의 경우 『황제내경 영추』의 내용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는데 표현 방식에 있어 『사상방약합편』의 내용과 같은데, 사기의 표현은 『황제내경 영추』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Table 13).

Table 13. Comparison of Somatic Morphology and Physical Comportment Contents in 『Sasang-Bangyakhappyeon』 and 『Donguisasangjinryouijeon』

체질 구분	『사상방약합편』	『동의사상진료의전』
태양인	위엄과 용맹이 여유가 있다.	득의양양하여 거만한 듯하다.
소양인	흔들리듯 가볍게 보인다.	걸으면 흔들기를 잘한다.
태음인	후덕하고 진중하다.	엄연하고 꼳꼳하다.
소음인	의지하듯 단정하다.	서면 뒤뚱뒤뚱하고, 보행할 때 앞으로 수그린다.

7) (10-6) 少陰人面色淡紫則無病 濁則有病 太陰人面色潤紫則無病 少陽人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 太陽人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Table 14. Comparison of Eye Characteristics for Each Sasang Constitution in 『Sasang-Baneyakhappyeon』

체질 구분	『사상방약합편』	『성리임상론』
태양인	-	눈빛이 강하다
소양인	눈빛이 빛나고 밝다. 눈, 코, 입이 날래고 예리하다. 눈알이 우뚝하게 돋아 있다.	멧돼지의 눈처럼 합리적이고 등글면서 맑다. 눈이 작으면서 눈꼬리가 있다. 눈이 영리하게 보이면서 淸하다. 눈주위가 얇고 날카롭게 쩌졌다.
태음인	눈알이 옷칠을 한 것처럼 검다.	소의 눈 또는 호랑이의 눈처럼 부리부리하게 무섭게 보인다. 둔하게 보인다. 멍하게 보인다. 둔하게 쩌졌다. 우직하게 보인다.
소음인	-	새의 눈(닭의 눈)으로 등글고 눈꼬리가 조금 있으면서 탁하다. 울고난 후의 눈물이 고여 있는 형상이다. 영리해 보이나 탁하다. 눈주위가 두텁다.

『성리임상론』에서는 사상인의 외형에 따른 체질 감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顔形과 顔色, 顴形, 眼形, 鼻形, 脣形, 下顴形, 手形, 足形에 대한 체질별 특징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사상방약합편』이 체질별 특징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성리임상론』은 다양한 임상 개별 사례를 취합하여 정리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Table 14).

## 2) 問診

『사상방약합편』의 問診에 기술된 내용은 1973년 의림 97호의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며, 발한, 대변, 계절별 기후 적응에 대한 반응, 선호하는 과일, 통증 양상 등의 소증 및 병증과 관련한 체질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소증 대표 지표인 발한과 대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 ① 發汗 특징에 따른 체질 감별

『사상방약합편』에서는 발한으로 피로도가 증가하면 소음인이며, 발한으로 피로가 감소하고 상쾌하면 태음인이고, 발한에 따른 피로 정도의 영향이 없으면 소양인으로 구분하였는데 타 서적에서 동일한 표현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의수세보원』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의 허한의 차이들<sup>8)</sup> 태음인의 완실무병을 중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체질별로 발한 부위에 따른 질병의 예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 체질 병증론 항목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환자의 병이 풀리는 상태를 확인하는 발한의 부위로 소음인의 인중<sup>9)</sup>, 소양인의 손발바닥의 발한<sup>10)</sup>이 기준이 되며, 태음인의 경우 특정 부위에만 땀이 나는 것은 흉증으로 간주하고, 배부에서 흉역까지 전신의 발한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병의 예후에 보다 길증으로 판단한다<sup>11)</sup>.

『동의사상신편』의 發汗에 대한 내용은 동의수세보원 신축본의 내용과 동일하다.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에는 땀을 통해 체질별 유병과 무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태양인과 태음인은 신체에 땀이 많으면 병이 없고, 소양인과 소음인은 신체에 땀이 없으면 병이 없다<sup>2)</sup>고 하였다. 병의 길흉을 살피는 신체부위

- 8) (17-9) …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 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 則完實也 …
- 9) (9-35) 少陰人 病愈之汗 人中先汗 而一次發汗 胸膈壯快而活潑 亡陽之汗 人中 或汗或不汗 屢次發汗 胸膈悶躁而下陷也.
- 10) (9-10) 論曰 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有汗 則病解 手足掌心不汗 則雖全體皆汗 而病不解. (9-35) … 少陽人 病愈之泄 手足掌心先汗 而一次滑泄 表氣清寧 而精神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不汗 屢次泄利 表氣 潮寒 而精神鬱冒.
- 11) (12-7) 太陰人 背部後面 自腦以下 有汗 而面部髮際以下 不汗者 匈證也 全面 皆有汗 而耳門左右 不汗者 死證也. 大凡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 而病解也
- 12) (10-9)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Table 15. Comparison of Sweating Characteristics for Each Constitution in 『Sasang-Bangyakhappyeon』

체질 구분	『사상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태양인	-	-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소양인	汗流而不疲者	手足掌心有汗 則病解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태음인	汗多而爽快者	虛汗 則完實也,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 而病解也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소음인	汗少而疲者, 汗多亡陽者	虛汗 則大病也. 病愈之汗 人中先汗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로 각 체질별로 소음인의 인중, 소양인의 주위, 태음인의 액상, 태양인의 외신<sup>13)</sup>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5).

『동의사상진료의전』의 발한을 통한 체질 감별은 동의수세보원의 기준과 일치한다. 태음인은 발한 상태에 따라 건강상태와 심상증을 진단할 수 있으며 한 끝에 걸렸을 때 발한 부위에 따라 병세의 진퇴를 가늠하게 된다. 또한 태음인의 허한이 있으면 완실하고 소음인은 허한이 있으면 대병로 구별하게 되며, 소음인은 평소 속이 답답하고 땀이 많으면 병적인 상태로 어떠한 병이든 상관없이 자한이 없고 인중에 땀이 있고 물을 잘 먹는 것은 심상증으로 보았고, 소양인은 표리증을 막론하여 수족장심에 땀이 나면 심상증으로 보았다.

『성리임상론』에서는 수족장심의 발한 상태를 무한, 다한, 냉한으로 구분하여 체질별 병인의 차이와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족장심 무한의 경우 태음인은 폐결핵, 소음인은 복냉결과 위냉의 심화, 소양인은 비수한증과 위수열증의 중증화가 원인이라 하였다. 태음인의 수족장심 다한 증상은 外感性 傷肺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갈근해기탕, 한다열소탕, 조리폐원탕으로 치료하며, 소음인의 수족장심 다한은 위냉과 신양소모로 인한 냉한이 주요 원인이

며, 소양인의 수족장심 다한은 위열의 심화와 신음의 소모로 발생하며 양격산화탕, 형방도적산, 독활지황탕, 형방지황탕 등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족장심의 냉한은 태음인의 간수열증, 소음인의 신수열증, 소양인의 방로과다, 신국하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고, 소양인에게서 수족장심의 건조하면 병이 중증이며, 땀이 나는 것을 경증으로 보고 병이 낮은 징후라 하였다.

## ② 대변

『사상방약합편』에서 대변은 횡수의 증가에 따라 피로도가 증가하면 소양인,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소음인, 대변 횡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체질은 태음인으로 구분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변증론에는 태양인은 변비가 8-9일간 지속되어도 위중한 증상이 아니라 하였고<sup>14)</sup>, 소양인은 대변이 잘 통하는 것이 완실무병한 상태<sup>15)</sup>이며, 대변이 통하지 않으면 흉격이 열화와 같이 뜨겁고, 태음인은 이질이 소장<sup>16)</sup>의 중초가 막힌 것이 안개와 같고, 소음인은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배꼽 아래가 얼음처럼 차다<sup>16)</sup>고 표현하였다.

13) (10-11) 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當於人中之汗不汗也 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當觀於肘外之汗不汗也 太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當觀於額上之汗不汗也 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當觀於外腎之汗不汗也

14) (17-15) 太陽人 有八九日 大便不通證 其病 非殆證也 不必疑惑 而亦不可無藥 當用獼猴藤五加皮湯

15) (17-16) …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

16) (17-17) … 太陰人 痢病 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 則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 則臍下 必如氷冷 …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에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대변이 활리한 것이 길한 징조이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활리하면 불길한 징조<sup>17)</sup>라고 하였다.

『동의사상진료의전』에서는 태양인은 대변이 윤택하고 양이 많고 크면 건강한 상태이며, 태음인은 대변이 비조하고 소변이 많으면 병적상태로 보았다. 소음인은 1개월간 2-3차례 설사가 있거나 하루에 마른 변이 3-4차례 있는 것은 병적인 상태로 보았으며, 소양인은 대변이 1일 이상씩 나오지 않으면 병적 상태로 보았으며, 건강하면 대변이 처음에는 조하고 끝은 활하며 자루가 굵고 소통이 잘되는 양상이라 하였다.

『성리임상론』에서는 용변시간, 대변의 모양과 길이, 굵기 등에 따라 체질별로 감별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체질별 용변시간은 소음인이 가장 오래 걸리고, 소양인이 가장 빠른 편이라 하였으며, 변의 길이는 소음인이 가장 길고 소양인이 가장 짧으며 변의 굵기는 태음인이 가장 가늘고 소양인이 가장 굵다 하였다.

### 3) 聞診

『사상방약합편』과 비교를 위해 선정한 기존 사상 의학 이론편 및 임상서적에서는 감별 기준으로 음성 특성을 적용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四象臨海指南 四聲論』과 『한의학표준진료지침(CPG) 사상체질병증』의 사상인의 음성 특징에 대한 임상 전문가 종합 의견의 내용을 함께 비교하였다. 『四象臨海指南 四聲論』에 따르면 태양인은 소리가 높고 맑고 원만하며, 소양인은 소리가 가볍고 낮고 급하고 멀리 가며, 태음인은 소리가 무겁고 탁하고 방정하며, 소음인은 소리가 느리고 평안하다 하였다. 사상체질병증 CPG에 따르면 태양인은 목소리가 크고, 맑으며, 멀리까지 잘 들리고, 소양인은 목소리가 맑고 낭랑하며, 빠르고 고음이거나 말이 많은 편이고, 태음인은 말이 적고 중후하며 느린 저음의 탁음이고, 소음인은 조용하고 침착하며 조리 정연한 편으로 느리고 힘이 없다

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sup>6)</sup>

『사상방약합편』의 내용과 비교하면 소음인의 특성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양인과 태음인의 특성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切診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체질별 맥의 특징으로 태음인은 長而緊하고, 소음인은 緩而弱하고, 소양인은 浮數하거나 微弱하다 하였고,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에서는 경험적으로 소음인의 맥은 沈遲, 태음인의 맥은 緊張하다 하였으며, 『성리임상론』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태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러도 힘이 있으며(長而緊), 소음인은 처음에는 맥을 짚으면 그대로 나타나다 힘을 주면 완맥이 점차 느려진다(緩而弱) 하였고, 소양인은 처음에는 맥이 잘 잡히지 않으나 조금 힘을 주면 잠시 나타났다가 힘을 세게 주면 사라진다(微細不現)고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서적에서 체질별 맥의 차이를 맥상과 맥의 유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사상방약합편』에서는 태음인 약 60회/분, 소음인은 약 70회/분, 소양인은 약 80회/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5) 體診

『동의수세보원』 사상인변증론에서는 사상인의 체형기상에 대하여 뇌추, 흉금, 요위, 방광 네 부위의 盛壯과 孤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病變 제5통에서는 폐비간신이 盛할 경우 각각 어깨와 등, 흉격, 양 옆구리, 허리와 腸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장부의 대소에 따른 체간 부위의 너비 및 둘레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상방약합편』에서는 이를 유상부, 유하부, 제상부, 제하부의 4개 부위의 둘레 길이를 측정해서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체간 부위를 측정하

17) (10-10) 太陽少陽 大小便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利則 不吉

는 체형 진단법 중에서 현재 가장 보편화되어 사용 중인 5부위 체간 측정법의 경우 겨드랑이 너비, 가슴 너비, 늑골너비, 허리너비, 장골너비를 측정하는데, 『사상방약합편』은 가슴부위(양 유두를 경유)를 제외한 네 부위의 둘레를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 6) 藥診

『사상방약합편』에서는 소음인에게 정향, 소양인에게 박하, 태음인에게 용뇌를 1푼 복약토록 하여 병증을 완화시키는 즉효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진단에 활용하였다.

『동의사상진료의전』에서는 타 체질의 약물을 복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他藥受害例’라 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양인 요약인 감수를 태음인에게 처방하면 흉조번통이 발생하고, 소음인에게는 구갈, 설사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각각 체질별로 태음인은 감수, 계지, 영사, 석고, 시호, 황백, 소음인은 갈근, 감수, 교맥, 대황, 영사, 이자, 미황, 석고, 수은, 사군자, 우육, 시호, 저육, 황백, 황련, 소양인은 계육, 부자, 인삼, 조각, 침향으로 인해 발생한 해로운 반응이 수록되어 있다.

『성리임상론』에는 약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태음인이 인삼을 복용할 경우 인삼의 청기가 간의 열성작용으로 인해 습열화하여 화농성습창이 발생하게 되며, 소음인이 숙지황을 복용하면 위의 한생독소로 습열화하여 소화 불량과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긴다 하였다.

## 7) 針診

『사상방약합편』에서는 사암침법을 적용하되 대소장부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좌측과 우측의 각기 다른 혈위에 자침을 하여 병세의 호전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진단한다.

비교를 위해 검토 목록으로 선정된 서적에서는 체질 감별의 기준으로 경혈을 활용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후대 임상가가 사상체질진단에 침진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사상의학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병행의 『침도원유중마』에서 언급한 ‘태극 침법’이 대표적으로, 태양인은 소부, 소양인은 소해, 태음인은 영도, 소음인은 신문을 각기 보하여 반응을 살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sup>1</sup>.

## III. 考察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체질을 분류하여 체질별 성정 특성과 질병 양상의 차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관리법을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 의학이다. 사상의학적인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질 진단이 병증 진단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체질 진단을 감별하기 위한 기준 항목으로 심욕, 성정, 항심, 성질계간 등의 내적 요소와 체형, 기상, 용모, 사기 등의 외적 요소 및 폐비간신의 장부 대소의 장리 특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제마는 체형기상과 성정, 소증과 병증의 관찰을 중시하였으며, 망문문질의 진단방법 중에서 망진과 問診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사상방약합편』은 근현대 사상의학 전문가로 손꼽히는 권영식 선생의 저서로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해져 해당 내용에 대한 현대 임상가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의학의 연구 분야 중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상인의 체질진단감별 기준에 대한 일부 내용을 확인한 후 필사본의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하여 정리하였고, 기존 주요 사상의학 서적의 진단 감별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후대의 체질 진단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동의수세보원』을 근간으로 하여 체형기상의 측정 항목으로 안면 촬영과 체간 측정, 음성 녹음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 등(2006)의 신체계측법 관련 연구<sup>8</sup>, 김 등(2007)의 망진과 설진에 대한 연구<sup>9</sup>와 윤 등(2006)의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에 대한 연구<sup>10</sup> 등이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법의

개발과 검증에 대한 연구는 김 등(1993)의 QSCC 타당화 연구<sup>11</sup>, 전 등(2008)의 SSCP 진단 정확률 연구<sup>12</sup>, 신 등(2009)의 TS-QSCD 표준화 연구<sup>13</sup>, 백 등(2015)의 KS-15 개발 및 타당화 연구<sup>14</sup> 등이 다수 연구가 시행되었다. 여러 진단 항목의 결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통합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2000년대 이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안면, 음성, 체형, 설문지를 활용한 통합 진단틀인 사상체질진단틀(SCAT)의 개발과 검증 연구가 대표적이다.<sup>15</sup>

진단 방법에 대한 기존 문헌 자료를 분석 연구로는 사상체질 진단법에 대해 외형, 심성, 증을 위주로 다양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 등(1999)의 ‘사상체질 진단법의 문헌적 고찰’<sup>16</sup>, 사상인의 용모에 대한 이 등(2005)의 연구<sup>17</sup>, 체질의 진단과 치료에 경혈의 활용 확대를 모색하기 체질침법의 연구 경향 분석을 통해 진단과 치료의 활용 원리를 정리한 유 등(2019)의 연구<sup>18</sup>가 발표되었다.

표준화된 체질 감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단법의 개발과 분석 및 검증에 대한 연구는 체질 진단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응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단법에 대한 임상현장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기존의 널리 알려진 체질 진단방법과 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을 추가 발굴하고 임상 활용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주제로 선정한 『사상방약합편』은 한국 근현대 한의사 중에서 사상의학의 이론 및 임상의 학술적 발전에 중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인 권영식의 대표 저서이다. 권영식의 사상체질 진단법에 대한 이론이 학계에 미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상방약합편』에 대한 현재 임상 현장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실정인데, 이는 해당 서적이 현재 절판되어 유통되지 않아 현장 접근도가 떨어지며, 현존하는 판본 역시 필사본으로 가독성이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저자는 필사본으로 현존하는 『사상방약합편』에 수록된 체질 진단 감별 방법의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한글 해설로 정리한 후에 주요 내용을 도표화하였고, 정리된 항목을 토대로 학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상의학 기초 임상서적들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 내용의 비교에 주로 활용한 임상 서적은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동의수세보원 갑오본』, 『동의사상신편』, 『동의사상진료의전』과 『성리임상론』이며, 해당 서적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상 의학 교과서와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사상방약합편』에서 체질 진단 감별에 관한 내용은 ‘診察方法’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7개 진단방법과 체질진단 원칙에 대한 종합적 결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진단법의 세부 항목은 望診, 問診, 聞診, 切診, 體診, 藥診, 針診으로 7개 항목은 모두 폐비간신의 대소특성(臟理)에 따라 각 체질별로 나타나는 차이로 감별하는 진단 방법이며 기존 서적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항목은 절진, 약진, 침진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望診의 경우 체형과 기상에 대한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사상인의 구별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 25례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고, 각 체질별로 태양인 2개, 소양인 10개, 태음인 8개, 소음인 5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問診에는 발한, 대소변 등 소증과 관련한 항목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고, 계절에 따른 체질별 감응 차이에 따른 감별 기준도 설명하고 있다. 聞診은 음성 특성에 따른 감별법을 설명하였고, 切診은 맥박이 느낄수록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보았다. 體診은 체형기상 진단법으로 망진에 포함이 가능하며 체간의 4개 구역에 따른 둘레 길이의 차이에 따라 태음인은 항아리 형태, 소양인은 나무못 형태, 소음인은 장고 형태, 태양인은 불균 형태의 형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며, 藥診에서는 체질별로 해당되는 약물을 복용케 하여 증상의 완화 여부를 관찰하여 감별하도록 하였다. 針診 또한 藥診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여 사암침법을 통해 각 체질별 해당되

는 혈위 자침이 병세의 호전 양상을 보일 경우 해당 체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약진과 침진은 환자의 치료를 통한 진단법으로 다른 진단 기준 항목과 구별될 수 있다. 체질진단의 원칙에 대해 망진으로 감별이 어려울 경우 문진 등의 다양한 진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그럼에도 의심이 가는 환자의 경우 약진과 침진을 통해 확실하게 판단한 후 약을 처방하도록 하였다.

『사상방약합편』은 기존 서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독창적인 진단 방법인 약진과 침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아닌 병증의 완화 효과를 관찰하여 체질 진단에 적용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에 기존의 진단 방법과 병행할 사상체질진단방법으로 『사상방약합편』에서 제시된 약진과 침진의 활용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방법의 감별 진단 정확도에 대한 임상 측면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상방약합편』과 유사하게 전자기록화 되지 않고 필사본으로만 출판된 사상의학 임상서적이 다수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이론적 연구 자료의 다양성과 임상적 활용 영역의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 발굴을 위해 필사본 자료의 전산화 작업이 확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 IV. 結論

필사본으로만 현존하는 권영식의 『사상방약합편』에서 사상체질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글로 해석한 후 주요 내용을 활용 빈도가 높은 기존의 사상의학 임상서적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상방약합편』에서 체질 진단 감별에 관한 내용은 ‘診察方法’에 수록되어 있다. 望診, 問診, 聞診, 切診, 體診, 藥診, 針診의 총 7개 방법을 소개한 후 종합적으로 체질진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상방약합편』과 기존 사상의학 임상서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望診, 問診, 聞診, 體診의 경우 관찰 결과에 대한 표현 방식과 진단 기준점 일부에서 설정 위치 등에 다소 차이는 확인되었지만, 진단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찰 대상 지표 항목 및 체질별 차이에 대한 진단 결과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유사하였으며 체질에 대한 진단이 상충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사상방약합편』에서만 확인되는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은 切診, 藥診, 針診이 특징적이며, 이는 기존 서적에서 제시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V. Acknowledgement

『사상방약합편』 1973년 발행본의 원본 사진을 제공해 주신 동대문구청 및 서울한방진흥센터 서울한의약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 VI. References

1.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t National Colleg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3rd ed. Seoul: Gunja Publishing House. 2024;9, 96-113, 488-493.
2. Kim NI. Modern and Contemporary Figur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eoul: Deulnyeok. 2011;364-365.
3. Park SS. Donguisusebowon: The Original Book of the Principles of Life. Seoul: Jipmundang. 2002: 226-269.
4.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Clinical Manual.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Seoul: Hanmi Medical. 2010:181-183.
5. Wonjisan. Donguisasangshinpyeon. Seoul: Jeongdam. 2002:9-12.
  6. Kim J. Sasang Pharmacology and Neo-Confucian Clinical Theory. Seoul:Daesung Culture Company. 1995:40-72.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 Patterns. Standar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eoul: NIKOM. 2022:48-70.
  8. Kim JW, Jeon SH, Seol YK, Kim KG, Lee EJ. A Study on the Body Shape Classified by Sasang Constitutions and Gender Using Physical Measurement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 54-61. (Korean)
  9. Kim JC, Yoo JS, Choi MK, Jung WG, Shin WY, Kim SH.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Checkup List and Inspection Diagnosis of Face and Tongue.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 156-175. (Korean)
  10. Yoon WY, Choi MK, Jung WG, Lee SJ, Yoo JS, Kim D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 Sound Wave to Sasang Constitution- by Sasang Constitution Anylised with PSSC-2004.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2):83-95. (Korean)
  11. Kim SH, Koh BH, Song IB. A Validation Study of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J Sasang Constitut Med. 1993;5(1): 67-85. (Korean)
  12. Jeon SH, Jung SI, Kwon SD, Park SJ, Kim KG, Kim JW. A Study on the Diagnostic Accuracy Rate of the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Doctors Used in the On-line System.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82-93. (Korean)
  13. Shin DY, Song JM.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S-QSCD. J Sasang Constitut Med. 2009; 21(1):99-126. (Korean)
  14. Baek YH, Jang ES, Park KH, Yoo JH, Jin HJ, Lee S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KS-15 (Korea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Questionnaire) Based on Body Shape, Temperament and Symptoms. J Sasang Constitut Med. 2015;27 (2):211-221. (Korean) DOI: 10.7730/JSCM.2015. 27.2
  15. SO JH, Kim JW, Nam JH, Lee BJ, Kim YS, Kim JY, et al. The Web Application of Constitution Analysis System - SCAT(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J Sasang Constitut Med. 2016; 28(1):1-10. (Korean) DOI: 10.7730/JSCM.2016. 28.1.1
  16. Jung WG, Kim JW.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95-117. (Korean)
  17. Lee EJ, Kim JW, Koh BH, Song IB, Son EH, You JH, et al. The Study of Sasangin's Face.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55-68. (Korean)
  18. Yoo JS, Han SZ, An DY. A Study on Establishing the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 Method through Reviewing Research. J Sasang Constitut Med. 2019;31(3):9-18. (Korean) DOI: 10.7730/JSCM.2019.31.3.9
- <저자들의 소속 및 직위>  
 유준상/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교수  
 오진아/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교수